

폭풍같은 성량으로 관중 압도하는 카리스마...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벨벳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오페라 카르멘의 돈호세를 사랑하는 시골 처녀 미카엘라 역을 하고 싶어 친구처럼 지내던 피아노 대신 성악으로 전공을 바꿔 꿈을 이룬 소녀는 이제 섬세한 연기력과 풍부한 성량을 가진 오페라 가수가 되어 넘치는 재능과 기량을 한껏 뽐내며 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직접 창단한 ‘선이 오페라단’ 이끌어 클래식음악 지평 넓혀

열악한 지역적 한계 극복 실력으로 승부 거는 당찬 ‘여결’

풍부한 성량·농염한 연기력으로 오페라 무대 사로잡음 조건 갖춰



단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리보엔,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 3대 걸작 오페라중 하나인 나비부인 역할에 최적화된 가수라는 달콤한 평가와 함께. 하지만 그는 집안 사정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고 2002년 귀국해 고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호남오페라단서 활동하다 3년전 오페라단 창단 호남 오페라단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그는 지방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실력을 뽐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연간 1편 이상은 무대에 올려 관객들을 만났고 독창회도 세 차례나 가졌다.

이렇게 내공을 쌓은 그는 2014년 자신의 이름 따지기를 ‘선이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새로운 길에 도전했다. 아이디어 싸움인 공연기획에서 출연배우로, 단원 섭외, 행정 등 일인 다역을 소화해 가며 벌써 전주에서만 2회 공연을 올려 모두 만석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좋은 아이디어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배우들의 열성적 노력과 무대에 충실한 것이 호응을 얻은 것.

도내에는 현재 대학교수 중심으로 오페라단이 몇 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단장처럼 개인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의 오페라단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남편인 바리톤 조한경씨의 도움이 컸다. 남편은 오페라단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에 가수들도 잘 챙겨주고 팀웍을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적극 나서 돕고 있다. 아직은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클래식계의 지평을 넓혀 실력을 인정받는 오페라단을 만드는게 꿈이다. 그лай만 자신처럼 지방대 출신 가수들도 쉽게 무대에 설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лай 후배들은 자신을 다담돌 삼아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 때문이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무료 초청 콘서트 마련

이 단장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이틀날인 오는 28일 전주전통문화센터 한 벽극장에서 다수의 성악가가 참여하는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의 초청공연으로 이루어진다. 공연의 성공을 위해 출연진 모두는 목가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오는 9월 중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세 번째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클래식 음악 애호가 30여명 정도를 초청해 살롱 콘서트도 구상 중이다. 가수의 스펙까지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의 살롱 콘서트는 가수와 관객이 일체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클래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대중성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믿는다. 밝기운 완연한 사월의 끝자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콘서트는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은 기자)



▶ 메조소프라노 이은선씨는?

시원 시원한 성격에 옆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말을 건네고 싶을 만큼 친화력이 돋보이는 오페라 가수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한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음악 공부를 도야 준 것을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는 효녀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편견을 갖고 보는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적 문화를 늘 안타깝게 생각해온 그는 그래서 더욱 이를 악물고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лай만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지방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을 때문이다.

자금 모금부터 공연기획 및 배우섭외, 무대세팅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오페라단을 달력 창단한 것도 이같은 이유가 컸다. 3년전, 자신이 창단한 오페라단이 아직은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말한 그는 전반적인 운영을 남편인 바리톤 조한경씨가 적극 도와주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 공을 남편에게 돌렸다.

앞으로 갈길은 멀지만 성악가로서의 기량은 물론 섬세한 연기력 등 오페라 가수가 갖추어야 할 재능이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달고 있는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타고난 성량, 피아노 배우다 대학서 성악 전공 전복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이은선 단장(42)은 2014년 창단한 ‘선이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오페라 공연 기획자이자 가수이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고3(성심여고)까지 줄곧 피아노를 친구삼아 건반에만 몰입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지도하던 음악선생님이 타고난 목청이 아름답다며 조심스레 성악을 권유하는 바람에 인연을 맺게 됐다. 고 3때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발성법을 익히는 등 성악을 배운 그는 이 분야도 자신과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대학(원광대 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했다. 대학에서 성악은 재미를 넘어 즐기면서 하는 공부가 됐다. 음악은 메조소프라노.

▲이태리 유학중 실력 인정받아 현지 언론 극찬

성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대학시절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오페라 카르멘이 하고 싶었다. 그래서 발성과 함께 연기에도 관심을 갖고 연습을 했다. 대학 졸업과 함께 전주시립합창단에 정식 단원으로 입단한 그는 합창단에 들어가서도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4년여 동안 시립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던 그는 합창단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남편(바리톤 조한경)과 함께 이태리로 유학길에 올라 오페라의 본향에서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시작했다.

로마의 한 오페라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던 그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학중 틈틈이 카르멘을 공연할 때는 현지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유학 5년만에 귀국을 준비하던 그는 미국의 한 오페라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